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
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전력산업과 최형기 과장(2110-4897), 신용민 사무관(4900)
원전산업정책과 강경성 과장(2110-5481), 이판대 사무관(4882)
에너지절약정책과 나기용 과장(2110-4872) 김민하 사무관(4836)

지경부, 전력수급 비상점검 대책회의 개최

– 발전소 및 전력계통 특별조사 및 감사 실시
– 전력 수요관리를 통해 예비력 500만kW 이상 유지

□ 최근의 원전고장, 기온하락 등에 따라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, 안정적인 전력공급 대책을 마련하고자,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"전력 수급 비상점검 대책회의"를 주재(12.15(목) 14:00, 한전)

○ 이날 회의에서는 ① 전국 발전소·전력계통 설비에 대한 집중조사 및 제도 감사를 통한 전력공급 차질방지 대책, ② 전력수요 감축방안, ③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홍보대책 등이 논의됨

금주 전력수급 전망

□ 금주는 원전고장·기온하락 등으로 12.15일(목), 16일(금) 예비전력은 각각 418만kW, 408만kW으로 전망

○ 12.13일 고장으로 가동중지되었던 울진 1호기는 12.15일 02:00부터 전력계통에 재병입되었으며, 12.15일(목)은 50%출력, 12.16일(금)부터는 100% 정상가동될 것으로 예상

○ 향후 기온하락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예비력 유지를 위해

- 전력공급 차질방지를 위한 긴급점검 및 보완대책과 전력 수요관리 대책을 집중추진하기로 함

안정적인 발전소 및 계통운영

□ 12월초 발전소 및 계통설비 고장예방을 위해 한전, 발전회사 중심으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, 최근 연이은 발·변전소 고장에 따라 특별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계획

○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지경부(감사실/전력산업과), 유관기관(전기안전공사), 전문가(교수, 전기연구원) 등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하여,

○ 설비운영,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 및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, 고장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정조치를 실시할 계획

□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, 고장재발 방지대책을 수립, 시행할 계획

□ 한전 및 각 발전사는 재해 및 고장 대비 신속복구체제를 강화하여 24시간 비상대기를 운영하며, 특히 폭설이나 이상한파에 대비한 신속 복구체계를 마련, 운영키로 함

□ 발전소 및 계통고장 방지를 위해 고장 빈도가 높고, 노후 정도가 심한 발전·송전설비들에 대해서는 본사임원 및 발전·변전소 주요간부들이 직접관리하게 하는 책임운영제를 강화하여 시행

○ 특히 각 전력사는 인적실수에 의한 발전정지 유발시 이에 대한 가중징계를 통하여 발전소 운영정지 등에 따른 전력수급 차질을 철저히 방지하기로 함

전력 수요관리 대책

□ 일단 금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대규모 사용자 대상 긴급 수요감축, 절전 규제,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등을 통해 200만kW의 예비력을 추가 확보하기로 함

① 대규모 사용자 긴급감축 : 한전과 사전약정을 맺은 전기사용자는 조업일시 중단 등을 통해 피크시간대 사용전력을 20%이상 감축하고,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 받음

- 정확한 전력수급전망을 통해 필요한 감축량을 결정하고 1~3일전 사전예고를 통해 4,000여개소중 참여 대상자를 모집하며, 금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동제도를 통해 100만kW이상을 확보

② 절전규제 본격돌입 : 계약전력 1,000kW 이상 사용자 14,000여개소에 대한 절전규제가 12.15(목)부터 본격시행되어, 대상자는 오전, 오후 피크시간동안 전력사용량을 전년대비 10% 감축추진

③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: 12.15(목)부터 100kW 이상의 상업용, 교육용 건물 58,000개소는 난방온도를 20℃이하로 유지해야 하며, 저녁 피크시간에는 네온사인 조명사용이 금지됨

* 12.5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12.15일부터 본격 시행

□ 다음주에도 절전규제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지속되며, 대규모 사용자 긴급감축 제도는 전력수요 상황에 따라 필요시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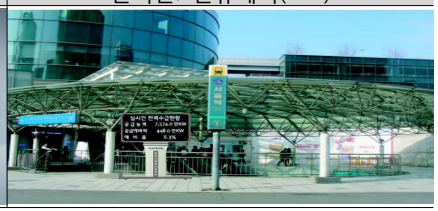
○ 전력수급 시계 설치 : 전국 32,000여개소에 전력수급 상황 등을 안내하는 전력 수급시계 설치 및 운영

* 청계광장 등 전국 20개소 대형전광판, 서울시 지하철 268개 역사의 8,248개 모니터, 전국 1,380개 아파트단지의 22,500개 모니터

<실시간: 기존 전광판 활용>



<실시간: 신규제작(LED)>



□ 절전사이트(www.powersave.or.kr)에 '연간 5% 이상 절전' 목표를 스스로 선언·등록하여 자발적으로 절전을 실천하는 '범국민 5% 전기모으기 운동' 추진

○ 참가 희망자는 절전사이트의 『5% 자율절전 코너』에 등록하고, '겨울철 전기절약 행동요령(절전매뉴얼)' 등에 따라 자발적 실천

○ 참여 가정·단체에는 온라인 '참여 인증서'를 부여하고, 목표 달성시 절전사이트 '명예의 전당' 코너에 게재

□ 전기절약 운동 확산 및 절전 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한 시민단체와 학생위주로 125개조 시민감시단을 구성, 운영

○ 12.22일에는 전국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하고, 전력다소비 시설, 다중이용시설의 난방온도·조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본격 실시

○ 점검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절전 사이트 게시(위반사례 인증샷)하는 한편, 언론 기획보도와 연계하여 우수·낭비사례 공개

전력수급 비상점검 대책회의 개최(안)

□ 회의 개요

○ 일 시 : '11. 12. 15(목) 14:00 ~ 15:00

○ 장 소 : 전력거래소 (수급상황 점검) → 한전 (11층 대회의실)

○ 참석자(안)

- 지 경 부 : 장관 (주재), 에너지자원실장, 에너지산업정책관

* 관련과장: 전력산업과, 진력진흥과, 원전정책과, 절약정책과, 에너지안전팀

- 전력기관 : 전력거래소, 한전, 발전 6개사, 에너지관리공단, 전기안전공사 등 10개 유관기관장

- 시민단체 : 소비자단체협의회(김재옥), 새마을운동중앙회(이재창), 에너지시민연대(남미정), 에너지절약SNS포럼(김규민)

□ 진행 계획

구 분	주 요 내 용	비고 (소요시간)
수급점검 (전력거래소)	중앙급전소 수급현황 점검	14:00~14:15
비상점검 대책회의 (한전)	기관별 수급비상대책 보고	14:15~15:00
	대책 토의	